

공모주 '한번 땅겨볼까'

투자 수익 안정 … 광주 투자자들 관심 높아져

지역난방공사 637만주 청약에 1천433억 몰려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역투자자들이 장내에서 주식을 사는 것 보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주식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부쩍 공모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27일 마감된 모비에스 공모주 청약경쟁률이

704대1을 기록하며 1조3천328억원

의 자금이 몰렸다. 같은달 18일 마

감한 영흥철강의 공모주 청약에도 1조원이 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쏟아졌다. 54억원(44만9천739주) 모집에 1조3천272억원(2억2천120만 6천930주)이 유입됐다.

여기에서 이달로 예정된 대한생명의 공모주 청약을 포함해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설립한 기업

인수목적회사(SPAC) 등이 청약에

나설 경우 공모주 시장이 한층 가열

또 포스코 건설, 케이티씨에스, 케이티스 등 대기업 계열사와 삼성생명 등 대형생명보험사들도 공모주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은 1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모주를 선택할 때는 시장 상황을 살펴 공모가가 적정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정 공모주의 경우 상장프리미엄이 길게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든 상장 첫날 주식을 사든 공모주는 절저하게 단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설 앞둔 재래시장 활기

설을 일주일 앞둔 7일 광주 남광주시장에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벌길이 이어지면서 매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매입 임대 피해’ 또 발생

광산 임대업자 잠적 30세대 ‘발동동’ … 대책위 법적 대응 나서

지난해 9월과 올해 초 불거진 매입 임대사업자에 의한 전세 세입자 피해가 최근 광주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청와대는 매입 임대 피해가 확산하자 각 지자체에 실태파악을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문수대하주택 전세세입자 피해자들의 모임(이하 문수대하 대책위)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에 임대아파트 수

집체를 소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사업자 K씨가 은행 대출금을 연체한 뒤 임대차 전세 세입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통지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세대는 광산구 도현동 J아파트 21세대와 우산동 S아파트 7세대, 월곡동 H아파트 2세대 등 총 30세대다. 가구당 500만~1천만원 가량 피해가 예상돼 피해 규모는 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문수대하 대책위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례 수집과 대책을 고심 중이다.

올해 초 피해를 입은 문수대하 대책 위는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임대업체 대표 M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철수 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은 “문수대하주택 피해자 830여 세대 중 450세대가 1차로 9일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

이다”며 “추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재균 의원(북구을)은 이날 임대주택 세입자의 피해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도주택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기존의 공공부동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까지 정부가 매입,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 전 회장 즉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 아파트 경매시장 ‘봄기운’

1월 한달 93건 성사 … 매각률도 59% 껑충

전남 토지 경매 활발 … 1,501건 전국 최고

새해 들어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반면 전남은 토지 경매가 활발했다.

7일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159건이 진행돼 93건이 매각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보다 각각 38건, 41건이 늘어난 것으로 매각률도 43%에서 58.5%로 광충(59%)에 뛰었다. 매각률 역시 84.5%에서 85.7%로 올랐다. 특히 평균 응찰자 수가 8명으로 전국 평균 5명보다 3명이 많았다. 전체 낙찰건 수 93건 중 응찰자 수가 10명을 넘은 물건도 31건이나 됐다.

반면 토지 물건 수는 1천501건으로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를 1위는 각각 21명이 몰린 광산구 월계동 성원 아파트 93.2㎡(1억223만원)과 서구 치평동 대우금호아파트 59.9㎡(8천801만원)이 차지했다. 매각률은

1위는 남구 봉신동 모아아파트 59.9㎡(감정가 6천400만원→매각가 7천299만원)과 같은 아파트 47.7㎡(감정가 5천만원→매각가 5천699만원)이 나란히 114%를 기록했다.

전남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차분했다. 아파트 물건 수는 63건으로 전체 낙찰건 수 93건 중 응찰자 수가 10명을 넘은 물건도 31건이나 됐다.

반면 토지 물건 수는 1천501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각률은 85%로 전국 평균(77.4%) 대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남 토지 경매률은 엑스포가 예정된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밭에 21명 응찰해 1위를 차지했고, 매각률은 감정가 435만원의 합평군 월야면에 예리 입야 야 3천500만원에 낙찰되는 80%를 기록했다.

특히 감정가 200억 원대의 목포신항만 내 국제석재물류타운은 6회차례 경매가 유찰돼 다음달 15일 7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사회복지센터(감정가 37억9천400만원)도 오는 16일 3회차 경매를, 보성군 보성을 교회(감정가 33억9천200만원)는 다음달 22일 4회차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 하이브리드카 ‘레이’

‘시카고 오토쇼’ 첫 참가

현대·기아차가 오는 10~21일 열리는 ‘2010 시카고 오토쇼’를 플리그인 하이브리드차 메이커로서 위상을 높이는 자리로 활용한다.

7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 모토쇼에서 플리그인 하이브리드 콘셉트카인 ‘블루윌(Blue-will)’과 ‘레이(Ray)’를 각각 출품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이미지가 공개된 기아차의 레이는 이번 모터쇼가 사실상의 데뷔 무대이다.

레이의 상세 제원은 시카고 모터쇼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최고 출력 154마력에 1천600cc의 배기량을 갖춘 ‘블루윌’보다는 성능이 뛰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두 모델 출품을 계기로 전기차의 중간 형태인 플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온누리 상품권 10일부터 판매

光銀·새마을 금고

설을 앞두고 밤행이 지연(광주 일보 3일자 1면)됐던 광주 지역 온누리 상품권이 10일부터 광주 은행과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된다.

광주은행은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시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10일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금호 박찬구 前회장 경영 복귀 추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과의 갈등으로 경영일선에서 배제됐던 박찬구 전 회학부문 회장이 경영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5일 “박 전 회장이 (주체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사제 출연 범위 및 경영복귀를 두고 의견을 조율”이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 측은 “박삼구 명예회장과도 만나 ‘금호’를 살려내는 일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산업은행 관계자 및 박 명예회장과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 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재출연은 금호그룹을 살려내기 위한 박 전 회장의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375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8	19	25	27	45
7					
등 위					당첨금수
1	6개 숫자 일치	1,581,284,058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3,924,558			42
3	5개 숫자 일치	1,442,402			1,279
4	4개 숫자 일치	56,807			64,951
5	3개 숫자 일치	5,000	1,096,831		

*‘풀로복권’은 올해부터 추첨주기가 월2회(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코스피지수

1,567.12 (-35.31)

코스닥지수

497.37 (+0.08)

금리 (국고채 3년)

4.22% (-0.05)

원·달러 환율

1,169.90원 (+2.10)

※수치는 5일 기준 1주전과 비교

경매에 관한 모든 상금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원하시는 주제에 맞는 주택이나 토지,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경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매 전략을 제공합니다.